

WILLKOMMEN.
Internationales Agentenzentrum
WELCOME.
International Agent Centre



인협, 뉴욕도서전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참가

미국·유럽 도서전 공략 2월9일까지 참가업체 모집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는 오는 6월1일부터 3일까지 미국 뉴욕의 Jacob Javits Center에서 개최되는 북엑스포아메리카2007(www.bookexpoamerica.com)과 10월10일부터 14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Messe Frankfurt에서 열리는 프랑크푸르트도서전2007(www.buchmesse.de)에 한국관을 개설, 참가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 전시회 참가는 인협이 한국의 우수한 인쇄문화를 해외 시장에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인쇄물 수출증대를 도모하고자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다. 올해 인협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개최되는 북엑스포아메리카와 유럽의 중심이며 전 세계 출판인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 참가할 계획이다. 인협은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오는 2월9일까지 선착순으로 참가업체를 모집한다.

인협은 북엑스포아메리카에는 50㎡ 규모,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는 40㎡규모의 한국관을 설치할 예정이다. 각 전시회 참가비는 2백만원(인테리어 및 행사비 일부)이고 전시물 및 참가업체 카탈로그 제작, 전시물 운반, 참가업체 임직원 파견 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참가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북엑스포아메리카 ... 6만㎡ 규모 2천 개사 참가 7만명 방문

1993년 1회 개최 이후 해마다 열리는 북엑스포아메리카는 6만㎡의 전시장에 통상 2천 개업체가 참가하고 7만여명의 방문객이 참관하는 미국 최대의 도서전이다. 일반 출판물은 물론이고 아동·교육물, 오디오·비디오, 지도·지구의, 예술서적, 종교물, 전문·기술·과학물, 심령과학물, 외국어물, 대학출판물 등이 전시된다.

북엑스포아메리카는 각기 다른 교육적 내용, 작가 이벤트, 특수산업을 연계함으로써 각 사업체들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역동적인 공급망과 네트워킹을 만들 수 있는 영어권에서는 가장 유력한 전시회의 하나다. 또한 책에 대한 무한한 열정으로 출판사, 서점, 도서관 사서들에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한편, 전세계의 전문가들에게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북아메카엑스포2006에서는 작가들이 참여하고 교육 프로그램, 이벤트를 담은 '뉴 북엑스포 포드캐스트'라는 인터넷 방송을 제공함으로써 엄청난 성공을 거둔 바 있다.

6월1일부터 6월3일까지 전시가 이뤄지는 북엑스포아메리카2007에서는 부대행사로 5월30일 작가 컨퍼런스, 5월31일부터 6월3일까지 교육 프로그램, 6월1일부터 6월3일까지 국제 저작권 센터 등의 행사도 개최된다.

프랑크푸르트도서전...20만㎡ 규모 7천개사 참가 30만명 방문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은 15세기에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명실상부한 유럽 최고의 도서전으로 위상을 정립하고 명성을 떨쳐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이후 독일의 눈부신 경제발전 속도와 함께 프랑크푸르트 도서전도 빠른 기간 내에 '세계 최대의 도서전', '출판 올림픽', '문화 올림픽'이라는 다양한 수식어를 얻을 정도로 급성장했다.

오늘날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는 매년 110개국 이상에서 7천여 참가사들이 자사 출판물 및 상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매년 34만권의 책과 8만권의 신간이 소개되고 있다. 또한 올림픽 취재 기자 수보다도 훨씬 많은 1만2천여명의 기자들이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대한 열띤 취재 경쟁에 나선다. 예술서적, 일반서적, 달력, 만화, 잡지, 신문, 지도 등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출판물이 전시되는 가장 인지도 높은 도서전이다.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여했던 프랑크푸르트 도서전2006에는 인협이 한국관을 조성해 대한교과서(주), (주)두산인쇄, (주)연미술, 청아문화사, (주)홍일문화, 계성제지(주) 등 6개 업체가 견본제품 및 홍보물을 전시하고 다수의 수출상담을 진행했으며 그 외 20여개 업체도 홍보 브로셔를 위탁 전시한 바 있다.

조갑준 차장 kjcho@print.or.kr